



10월 선교부소식

1. 다사랑 목장에서 섬기는 영국의 안재형 선교사님에 관한 선교 보고를 10월 26일에 해 주시겠습니다.
2. 웨카이나 campus 경배와 찬양이 10월 2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3. 선교부에서는 원주 제일 장로 교회 시온 성가대가 준비한 "사랑의주님" 음악 CD를 10월5일 성도님들에게 나누어드릴 예정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할 것은 찬양 밖에 없다고 하는데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우리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4. 10/18-19일에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 강사는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교수로 재직 중이신 정성욱 교수님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주위의 친구, 이웃, 가족, 친척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도 알려 함께 주님이 정교수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 받기를 기도 드립니다.
5. <선교부 추천 website>
<http://www.photohuh.com> 사진작가 허 중태님의 간증 '다시 찾은 생명'과 함께 아름다운 야생화 꽃 사진들이 있습니다.

10월 교회기도제목

1. 교회의 모든 행사가 기도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열매를 보기를
2.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도 살찌기를
3.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속히 드러지기를

SoulLake 편집 후기

나에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능히 함께 해주셔서 기어코 내게 해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K)

대학촌교회 오시는 길



예배 안내

구분	예배	시간	구분	예배	시간
주일	1부 예배	09:50 AM	주중	08' 새벽예배	월-금 06:00 AM 토 07:00 AM
	2부 예배	11:00 AM		금요찬양예배	금 07:00 PM
	Youth	09:30 AM		청년부 예배	금 08:20 PM
	주일학교	11:00 AM		목자훈련	목 06:30 PM
	한국학교	01:30 PM		Provo 제자훈련	화 07:00 PM
	제자훈련	02:30 PM		캠퍼스 730 Live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 07:30 PM

발행인: 김철홍 목사 / 편집인: 최희석, 송강 / 발행일: 2008년 10월 12일

유타대학촌교회 회지복간 제 55호

1724 E. 2100 S. Salt Lake City, Utah 84106

전화: 801-467-4337 (교회), 801-943-3904 (담임목사관) / Email: chulhongkim@ucccutah.org

본 유타대학촌교회 월간소식지는 교회 홈페이지(<http://www.ucccutah.org>)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October, 2008

목 차

- 피아노와 하나님
 - 김한별 자매
- 누리는 특권
 - 김승현 김사
- 함께 나눠요 (일상에서 나누는 나의 이야기)
 - 김정규 집사
- 안녕하세요, 유타대학촌교회
 - 이충식 목사님
- 유타대학촌 이모저모
- 유타 대학촌소식



미 유타대학촌교회 월간소식지 The Soullake

통 권 제 55호 (8) - 04

2008년 10월 12일

피아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 시편 150편 1절~6절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뻐했던 분은 바로, 아버지셨던 것 같습니다. 아들만 돌이었던 저희 가정에 딸을 간절히 원하시던 부모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딸을 얻게 되었고 그 기쁨에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선 딸에게 백일 선물로 피아노를 선물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피아노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죠.

피아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건 6살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신학을 시작하게 되시면서 아버지의 목회 사역을 도와드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로 섬기기 위해서 피아노 전공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때 아버지께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신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피아노 반주를 부탁받게되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수요예배 찬송가 반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아노 반주에도 서툴고, 너무 떨렸던 저는 매주마다 목사님께 미리 찬송가 목록을 여쭙보며 반주 연습을 하곤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많이 실수도 하며, 힘들었던 때였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반주를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조금씩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잠잠히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때때로 여러가지 좌절감을 맛보며 눈물지을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진실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으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평생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피아노 반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 드리며, 우리 유타대학촌 교회 가족들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찬양의 고백으로 삶 속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SL)



우리는 특권

By 김승현 집사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세상의 부, 지위, 권세,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구나... 하고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지금 돌아보건데 많은 시간을 그 축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시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고 누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 많이 들어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다 다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저에게 이 말씀은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찾아온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해주고 또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 제가 다시 조금씩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주신 은혜에 대해 조금씩 불만이 쌓여 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탕자의 이야기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형의 모습입니다.

탕자의 형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탕자의 형은 탕자와는 달랐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아버지를 등지지도 않았고, 방탕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가 베풀어 졌을 때도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29절에 나와 있는대로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늘 아버지와 동행하고 함께 하던 이 탕자의 형이 돌아온 탕자를 위해 베푼 아버지의 잔치에 뿔이 단단히 난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잔치에 참여할것을 권하는데도 노하여 참여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형의 입장에서는 늘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자신에게는 작은 은혜조차 베풀어주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방탕하게 살고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를 위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고 섬기는데, 왜 내가 받은 은혜는 다른 누구만큼 되지 못할까하며 비교하고 불내는 그런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말씀가운데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던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눅 15: 31-32)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정말로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탕자의 형에게 아버지가 내 소유는 모두 너의 소유이다. 내가 네게 그것을 주고 또한 누릴 권한을 주었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또한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구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무언가, 내가 원해서 구하는 무언가를 받는 것만을 은혜로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내가 구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즐거워 하고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자. 그런 음성을 말씀가운데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제사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그 선포가 무엇을 뜻하는지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재산이 많지 않아도, 권위가 없고, 능력이 없어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모두 나의 소유가 되는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권위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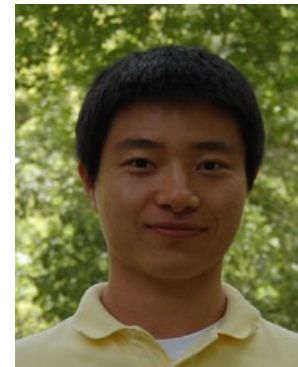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 댓가없이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말씀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새 가족등록

<지난 9월 유태대학총교회에 오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박경진 (10/3/80)



정해국 (6/22/89)



김강일 (1/27/86)



김덕호 (1/24/82)



안애림 (5/18/89)



이보혜 (2/22/86)



고효정 (10/23/87)



박희수 (5/27/89)



유한나 (12/23/89)

<더불어 지난 9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외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혼련은 매년 계속 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 예수전도단은 이와 같이 대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혼련시켜 미래의 복음 선교사와 전문인 선교사로 각 지역에 파송하는 사역과,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선교 혼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예배, 영상, 및 제자 혼련을 제공함으로써 헌신된 일꾼을 발굴하여 역시 해외 선교사로, 또한 선교사 후원 사역자로 길러 내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저는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역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부터 화요일 저녁마다 지역인들을 초청해 드리는 찬양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열방을 품고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깊은 예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릴랜드와 워싱턴 DC, 그리고 버지니아에 존재하는 500여개의 한인 교회들을 대상으로 예배, 영상, 제자, 선교 혼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사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선교 전방 기지에 나가있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훌륭한 선교사 동료들을 돕는 선교 동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영광스런 일로 생각됩니다.

** 기도의 부탁

예수전도단과 함께 하는 저의 사역은 지역 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적, 재정적 후원 시스템이 없으므로, 유타대학총교회와 같은 선교 후원인들의 기도가 제게는 더욱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이지만 저희 가정의 하는 사역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국 내에 있지만, 또 다시 선교사와 같은 길을 걷게 된 저희 가정이 이 지역 가운데서 선교 동원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선교 센터에서 다른 선교사 가족들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고, 아이들을 비롯해 저희 부모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단순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며 살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다섯 살 승기와 네 살 준기의 학교도 잘 연결이 되었고, 태어난 지 넉 달이 지난 나현이도 착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윤곽이 드러나고, 또 조금씩 열매를 거두게 될 때, 풍성한

멀리서나마 우리 주인님 안에서 동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성도님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SL)

In Him,

이중식, 정수정 (승기, 준기, 나현) 올림
3282 Rosemary Ln. West Friendship, MD 21794
shiklee@gmail.com
317-373-3228

<http://web.me.com/maryland>

[ywam-](http://www.ywam-)

FOR THE
KINGDOM
OF GOD,
NOT
CHRIS-



승기(5), 나현(4개월), 준기(4)

TENDOM



나현이의 백일 사진(5.12.08)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감격했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특권을 누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나에게 특권이 주어졌고, 그 특권을 누릴 자격을 얻었는데도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평안함이 없기 때문인 것을 알려주셨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세상 근심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늘 무언가 앞에 놓여있는 것을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 염려하고 근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지는 않을까 두려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내 인생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근심과 염려,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평안함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깥의 신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전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가운데 전전공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 6-7)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보다 더 큰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기도와 간구,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우리가 평안가운데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크리스천으로서 능력있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통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펼쳐진 잔잔한 평안을 깨뜨리려 합니다. 그 특권을 잊게 만들려고 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곧잘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특권보다는 눈에 보이는 근심과 두려움에 집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그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과거의 모습이 되고 다시 탕자의 형의 모습이 되어 불평과 불만을 늘어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교회를 허락하셨고 소그룹 모임 혹은 목장을 허락하셨고 그 교회, 소그룹 모임, 목장을 통한 예배를 허락하셨습

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에 치어 평안을 잃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잊으려 할 때 다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 넘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근심, 염려, 그리고 두려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였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예배를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이제 바뀐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 어려움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억누르지 못하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교회에는 주일에 1부, 2부 예배와 금요일 저녁 찬양예배, 토요일 아침 기도회, 매일있는 새벽기도회, 청년부 소그룹 모임, 매주 혹은 격주로 이어지는 목장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예배에 모이기를 힘썼으면 합니다. 이 예배 중에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직한 영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넘치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진리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어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의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열심으로 예배가운데 나오시고 예배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뿐 아니라, 평안과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여러분을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 23-25) (SL)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일상에서 나누는 나의 이야기

> 본인의 찬양역사

찬양단은 여기 유타대학총 교회가 처음이구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역사적인 곳입니다. 항상 음악을 즐겨 듣던 저에게 찬양은 또 다른 음악이라 생각했었죠. 근데, 그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귀중한 영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 기타는 처음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클래식 기타를 하나 사 오셔서, 문득 우와...소리 좋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정작, 하겠다고 하던 누나는 전혀 무관심이었구요;; 그러다, 대학에 들어가서 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클래식 기타에서 일렉 기타로 커다란 전환이었지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기타를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고, 지금 주님께서 쓰시는 찬양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 기타와 찬양과의 접목의 계기

처음에 찬양단을 보며, “나도 기타 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점차 “주님을 섬기는데 기타를 사용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변해서 지금의 찬양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주님과 거리가 아주 멀 때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패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예4;14)” 라는 말씀 또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기타를 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이 찬양단에서 섬기라고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 찬양을 통해 앞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목표

찬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품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캠퍼스로 나아가 그들에게 호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죄많은 우리가 살아있음이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찬양을 통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SL)



김정규 집사

By 이충식 목사님 (통역마를 신도)

미 유타대학총교회, 인도 선교를 위한 열매

유타대학총교회 성도님들께,

안녕하세요? 부족한 저희들을 기억해주셔서 기도와 관심으로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동부의 메릴랜드 지역으로 사역을 이동한 이충식, 정수정의 가정이 그 간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지난 2년 간의 교회 개척 사역

저의 사역은 2006년 7월 한 가정에서 첫 예배를 시작으로 그 해 10월에 교회를 “작은교회” 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정식 등록한 후, 숨가쁘게 달려와 올 해 초에 다른 한인 교회와 연합하여 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사역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성인 7명과 어린이 5명이 시작하여 그 후로 6명 이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3명이 세례를 받고, 마약 중독자가 새 삶을 찾고, 한 노숙자가 1년여 간의 우여곡절 끝에 개심하고 정착하였으며, 수많은 분들이 교회 정착하지 못하던 가운데 새로운 신앙 중심의 삶으로 정착하였습니다. 저의 노력이나 실력이 아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극적인 교회 연합으로 흑인, 백인, 1.5세, 2세, 가난한 자로부터 장애우등 각종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약 80-90명 정도의 작지 않은 식구 규모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규모 면에서도 작지 않고 보다 안정되었으며, 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보며 저희 부부는 개척자로서의 부르심을 따라 최근에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교회의 형편이 아직 넉넉지 않을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런 후원의 약정을 요청하지 않고 아무 조건없이 교회를 사임하여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역의 전환

저희 가정의 애초의 부르심은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개척하는 부르심에 저희들이 선뜻 응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 사역이나 개척 사역이 동일하다는 일관성을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개척 사역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보다 안정적인 사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본 이상 정말 선교지로 향해야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와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가기를 소망하여 준비하며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인도 선교를 목표로 둔 동부의 메릴랜드 예수전도단 선교 기지 개척 사역에 동참시켜주셨습니다.

메릴랜드의 예수전도단 선교 기지는 저희 옛 동료이자 현재 인도 선교사인 김홍진 목사에 의해 2008년 초에 개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옛 친구인 김 선교사가 왜 미국에 갑작스레 선교 기지를 개척했으며, 저를 왜 초청했는지 이 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참으로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이 곳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둘씩 풀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메릴랜드 예수전도단의 사역과 인도 선교

10억이 넘는 인도 인구 중 대부분이 가난하며, 힌두교나 회교 중심으로 뭉쳐 있어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는 정도의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중 천 만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복음의 필요성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감사한 일은 열정적인 우리 선교사들이 그물을 던지는 대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인도 선교 10년 경험의 제 친구 김홍진 선교사는 확신하며 말하기를, 인도가 앞으로 서남 아시아와 아프리카, 동남 아시아를 아우르는 선교의 주역들이 될 것이라 합니다. 김선교사는 이에 필요한 인적, 재정적 자원들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한인 기독교인들을 선교에 동원하기로 결심하고 잠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중입니다.

열핏 듣기에는 막연하기도 하고,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들릴 지 모를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 하나만 마음에 품고, 거의 100만불에 달하는 선교 기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거의 완공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 마무리 공사 막노동판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이미 20여명의 대학생들을 3개월 가 합숙 훈련시켜 인도의 단기 선교팀으로 보냈으며, 이들은 돌아온 뒤에도 평생 선교사, 혹은 선교사 후원자로서 헌신해 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